



5월 구역예배 순서지

 **예담교회**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486장 ·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 다같이

기도 | 구역원 중

성경말씀 | 시편 31편 9-16절 | 다같이

: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9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10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 버렸고, 뼈마저 녹아 버렸습니다.11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12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13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사방에서 헐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14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15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16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말씀살피기 | 다같이

시편 31편은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이런 ‘탄식시’가 많은데, 시인은 탄식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며 감사로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시는 곧 노래이고, 기도이고, 신앙고백이며, 찬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질문1) 고통과 근심 때문에 시인은 일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10절)

힘이 소진, 근력이 고통 속에 마름, 뼈마저 녹아 버렸다

질문2) 대적들이 시인의 생명을 빼앗기로 음모를 꾸며도 시인은 어떻게 결단하나요?(14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말씀묵상 | 인도자

시인은 시종일관 고통 가운데서 눈과 몸과 마음이 활력을 잃었다고 호소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시인의 탄식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인생을 설명하고 통찰하는 정의 가운데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통과 슬픔의 바다’입니다. 시인의 삶도 인생 전체가 슬픔과 탄식으로 얼룩져있습니다. 대적이나 원수들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마저 길에서 피하여 달아납니다. 심지어 고난에 빠진 시인을 몰래 없애 버리려고 사람들의 음모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고독 등 다양한 감정의 물결이 요동칩니다.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 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나 간증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으며, 예수님에게 진리와 영생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적용 | 다같이

1. 고통이나 고난의 원인이 외부나 타인보다 내 안에 있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 영적 침체(영혼의 어두운 밤)를 극복해 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눔 | 다같이

1.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
2. 합심기도 제목 나누기

합심기도 | 다같이

마침 | 주기도문 | 다같이